

희망을 여는 새벽종 청년의 대연대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17년 1월 26일

스승인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참가학회 제2대 회장이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됩니다.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초대 회장과 함께 평화와 인도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운 도다 회장의 사상적 기둥은 불법(佛法)이 설하는 생명존엄 철학에 뿌리를 둔 '지구민족주의'입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어느 민족에 속하든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이용당하거나 희생되면 안 된다.'

이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유엔이 현재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인류사회를 이루자고 부르짖는 이상과 일맥상통하는 사상입니다.

도다 회장은 이러한 강한 신념이 있었기에 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핵무기를 '절대악'이라고 단정하고 민중이 연대해 핵무기 금지의 흐름을 만들자고 외치셨습니다.

1957년 9월 8일,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간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요코하마 미쓰자와 경기장에 모인 청년 5만명 앞에서 "적어도 내 제자라면 오늘 내가 발표하는 이 성명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 이 뜻을 두루 알리기 바랍니다." 하고 외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와 연계해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016년 12월) 유엔총회가 핵무기금지조약 교섭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3월부터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섭회의를 통해 핵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길이 열리기를 강하게 염원합니다.

세계는 지금 이러한 핵무기 문제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분쟁과 급증하는 난민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류의 앞날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수만큼 희망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해(2016년)부터 시작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가장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년을 들었듯이 사실 이들 대부분 빈곤과 격차 등의 냉엄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평화를 구축하는 데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50호'를 비롯해 젊은 세대의 힘에 착안한 움직임이 유엔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SDGs를 설정한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서는 청년을 '변혁을 위한 중요한 주체'라고 언급하고 그 힘이 발휘되기를 기대했는데 저도 청년의 존재와 활약이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동력이자 2030년을 향한 유엔의 도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생명선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언에는 '청년'에 초점을 맞춰 SDGs가 목표로 하는 '평화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 위한 '파리협정' 발효

첫째, '같은 지구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연대를 청년 중심으로 넓혀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 기후협약으로 파리협정¹을 발효했습니다.

4월 서명식 때 175개국이 일제히 조인하고 협정을 채택(2015년 12월)한 지 1년이 채 못되어 참으로 신속하게 발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치부하던 일이 지금은 세계 나라들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¹ 파리협정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협정으로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온난화 방지 대책 기후협약이다.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6개국·지역이 협력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1세기 후반에는 인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맞춰 '실제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한다.

이렇듯 흐름이 바뀐 이유는 이상기후와 해면상승 등 기후변동의 영향이 잇따라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어느 나라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빈곤 종결을 비롯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에 달하는 SDGs를 실현하려면 온난화 방지 대책과 같이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한 행동의 연대를 모든 목표마다 구축해야 합니다.

SDGs가 너무나 방대하기에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증거이며 어느 것 하나도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문제는 없습니다. 분쟁도 재해도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난민문제도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 이어 '유엔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정상회의'를 9월에 열었는데 국제협력이 생각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결정 직후(2016년 10월)에 한 인터뷰에서 그러한 현상에 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역전시켜 난민보호를 전 세계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이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난민조약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문화와 종교에도 깊이 뿌리 내린 이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아프리카를 포함한 각지에서도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에서도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장한 대로 난민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더구나 그 대응을 위한 정신적 기반은 이미 전 세계에 여러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무리 크고 해결하기 어려워도 서로 연대하여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려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석존의 가르침은 응병여약(應病與藥)의 격려

불교의 출발점도 사람들의 괴로움을 함께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석존은 훗날 팔만법장이라고 할 정도로 방대한 가르침을 남겼는데 그 대부분 눈앞에서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한 가르침입니다.

석존은 가르침을 설할 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나는 만인의 벗이다. 만인의 동료다.'라는 신념으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석존의 평전을 저술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석가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해탈의 길을 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기술했습니다.

'해탈의 길'이라는 표현은 인도 의학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야스퍼스는 설명했는데 정말이지 석존의 설법은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응병여약(應病與藥)'의 격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존은 제자들에게도 "비구들이여, 유행(遊行)하라. 많은 사람의 복리와 안락을 위해" 하고 말했습니다.

민족이나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고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석존과 제자들을 '사방(四方)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석존은 생명은 존엄하다고 깊이 확신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고로 존귀한 생명이 있기에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라도 타고난 생명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나 미래는 과거의 숙명이 일체를 정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설하는 '숙명론'이 지배적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별한 원인이거나 조건이 없다고 보는 '우연론'의 사상도 퍼져 있었습니다.

'숙명론'은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은 바뀌지 않기에 자신의 상황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 인간의 마음에서 희망을 빼앗는 사상이었습니다.

또 '우연론'도 어떻게 행동해도 결과와 관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궤도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석존은 이러한 속박이나 악폐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태생을 추궁하지 마라. 행동을 추궁하라. 불은 실로 온갖 장작에서 일어난다." 하고 외쳤습니다.

인생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설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일념을 변혁하면 미래의 결과(과<果>)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태(인<因>)를 바

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연(緣)'이 중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이 같아도 어떤 '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한사람 한사람에게 나타나는 '과'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관점에 바탕을 두고 생명은 존엄하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내면의 힘을 끌어내는 임파워먼트

대승불교에서는 자타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보살'이라고 하고 유마경에는 그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병이 들끓는 중겁(中劫)에는 훌륭한 약이 되어 사람들을 해탈케 하고 병을 고쳐 행복으로 이끈다.

굶주림이 많은 중겁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어 배고픔과 갈증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법을 설한다.

창칼이 매서운 중겁에는 자애심을 닦아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다툼 없는 세상으로 인도한다.”

'사고(四苦)'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고뇌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유마경의 글처럼 자신이 위협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동고(同苦)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행동한다, 그 행동은 유마경의 '무진등(無盡燈)'의 법문²처럼 눈앞의 한 사람을 희망의 빛으로 비출 뿐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주위와 사회를 밝게 비춘다고 불교는 설합니다.

우리 국제창가학회(SGI)가 유엔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행동한 까닭은 이 '보살' 정신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² 무진등(無盡燈)의 법문

불교 재가신도인 유마힐(維摩詰)이 천녀들에게 설한 가르침이다. 등불 하나로 수백, 수천 개 등잔에 불을 붙여도 처음의 등불이 줄지 않고 널리 어둠을 밝히듯이 자신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그것을 널리 퍼트린다면 사회에 선(善)이 크게 넓혀진다고 설했다.

지금까지 난민구호활동을 지원하고 재해 때는 복구지원도 했는데 활동의 기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임파워먼트(내발적인 힘의 개화)'입니다.

왜냐하면 임파워먼트가 끌어내는 내발적 힘이야말로 '무진등'처럼 무한한 변혁의 에너지가 되고 희망의 빛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화성보처'의 비유

석존의 가르침 중에서 진수인 법화경에는 '화성보처(化城寶處)'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대상(隊商) 일행이 험한 길을 잘 아는 도사(導師)의 안내로 사막을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도중에 몹시 피곤해서 더 나아갈 수 없다며 포기하려 했다.

여기서 되돌아가면 이때까지 고생한 일이 허사가 되리라 생각한 도사는神通력을 써서 전방에 성을 만들어 저곳까지 가자고 격려한다.

다시 힘을 되찾은 대상 일행은 성에 힘겹게 도착해 쉬었다.

사람들이 잘 쉬는 것을 본 도사는 이 성은 여러분을 위해 나타낸 환상의 성(화성)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진짜 목적지(보처)가 가까우니 함께 그곳까지 가자고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존이 거듭 그 의미를 말한 게(揭)에서는 보처가 '보소(寶所)'라는 말로 바뀌지만 이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함께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러야 하느니라(當共至寶所)'는 구절입니다.

이 말에는 아무리 괴롭고 절망적이라도 서로 도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자타(自他)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의 대선언이라 할 인간성이 빛납니다.

또 앞에서 말한 인과관계에서 보면, 사람들은 사막에서 지칠 대로 지쳐(인) 보통은 주저앉고 말았을 텐데(과) 격려를 받고(연) 목적지에 도달했다(다른 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세기에 일본에서 법화경의 정신을 근간으로 불법을 전개한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여기서 말하는 화성과 보처는 결코 서로 다른 곳이 아닌 "화성즉보처"(어서 732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처에 도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러야 하느니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존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괴로움과 지도자의 격려가 인연화합(因緣和合)하여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염념(念念)의 화성'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자타 함께 존귀한 생명을 빛내는 '염념의 보처'가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에스키벨 박사의 신념

나는 이전에 SDGs에 앞서 유엔이 2015년까지 추진한 새천년개발목표에 관해 '목표 달성은 물론 비극으로 괴로워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얼굴에 웃음을 되찾는 일이 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적인 개선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리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인권활동가 아돌포 페레즈 에스키벨 박사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인간은 인류의 공통 목적을 목표로 나아갈 때, 자유나 평화를 지향할 때 범상치 않은 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신념은 잇따른 사회 정세의 불안에도 결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은 중남미 여러 나라의 민중과 깊은 연대를 맺으면서 박사가 기른 신념입니다.

박사는 민중의 행동을 상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중의 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가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민중은 영웅이 되려는 생각 따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적이 일어나 '꽃 한 송이'가 피기를 하루하루 바랄 뿐입니다. 그 꽃은 치열하게 싸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웃음지을 때 꽃이 피고 희망을 만들어내어 그 빛으로 길을 비출 때 꽃이 핍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에 꽃이 피어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SDGs를 달성하는 일은 어느 것도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임파워먼트의 물결을 일으키면 반드시 자기 주변에서부터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머리에서 언급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0호'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외친 것처럼 청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는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난민선수단의 결의

지난해 8월, 난민선수단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해 감동의 물결을 넓혔습니다.

출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저마다 다짐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나가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난민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경험들을 자신의 강인함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난민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될 생각입니다."

이 말들이 상징하듯이 본디 청년의 진면목은 과거의 모습도 미래의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SDGs가 내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이상은 청년에게는 머나먼 곳에 있는 지표도 언젠가 이루어야 할 미래의 목표도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지구에서 함께 산다'는 의미이고 나날의 행동을 통해 '삶의 기쁨을 나누는 사회'를 구축하는 삶과 같습니다.

청년이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이나마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자고 결의하고 일어설 때 그곳에서 주위 사람들이 희망과 살아갈 힘을 되찾는 발판이 될 안심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심처를 밝히는 '함께 산다'는 마음이 그대로 유엔의 목표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지구사회의 축도로서 빛을 발하고,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광명이 되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에 서다

저는 3년 전에 발표한 제언에서 청년들이 SDGs를 달성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과 시민사회가 협동해서 청년의 무한한 힘을 고집어내는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실시한 유엔 비정부기구(NGO) 컨퍼런스에 많은 청년이 참가해 세계시민교육의 추진을 약속하는 '경주선언문'을 채택해 참으로 기쁩니다.

국가나 사회의 진가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나타납니다.

교육에는 사회의 그러한 추진력을 형성하는 작용을 지속적으로 낳는 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은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연'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의 연대를 만드는 '연'이 됩니다. 이것은 한사람 한사람이 지구적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으로 ①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경험을 쌓고 ②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내어 ③다 같이 힘을 합해 발밑에서부터 '안심처'를 만듭니다.

저는 교육으로 넓힌 이러한 '연'의 파동으로 청년의 힘을 고집어낸다면 시대변혁의 흐름은 더욱더 힘차게 흐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심해지는 배타주의 현상

둘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단과 격차를 해소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가 급속히 세계화가 되면서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 수가 전 세계적으로 2억 4400만명에 달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수는 40퍼센트나 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오랜 정체와 더불어 배타주의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브라니츠키 전 총리가 3년 전에 빈에서 개최한 종교 간의 대화라는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민자나 망명자, 그 밖의 떠안고 있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연대의식이 낮아집니다. 거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운동 때가 되면 ‘외국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의식에 작별을 고한다’고 말하는 슬픈 현실을 나는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증오를 바탕으로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언설이나 배타적인 정치 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정말 걱정입니다.

지난해 9월, 유엔은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정상회의’를 열고 국제적인 인구 대이동이 일으키는 사회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 난민 수용국에 확산되는 불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해결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이 캠페인에서 외치는 바와 같이 수용국의 정당한 우려를 인정하면서 배타주의로 치닫는 현상을 해소할 길을 모색하고, 난민과 이주민들을 둘러싼 논의가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평화를 바라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1989년 10월, 브라니츠키 전 총리와 만났을 때 문화교류와 청년교류의 중요성을 둘러싸고 “제트기로 몇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일이 떠오릅니다.

대담에서 총리의 부모님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박해당하는 유대인을 집에 숨겨준 이야기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종교나 민족의 차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길을 관철해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총리는 전쟁 중에 겪은 이러한 체험을 떠올려 회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틴어 격언에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평화를 바란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로 바꿔서 행동합니다.”

신념에 찬 이 말을 들은 때가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기 한달 전이었습니다.

1989년 2월, 브라니츠키 전 총리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 사이에 있는 철조망을 철거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그해 9월부터 동유럽권 국가에서 서유럽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이 국경 개방이 베를린장벽의 붕괴로도 이어졌습니다.

통일 독일의 초대 대통령인 에른스트 폰 바이츠제커는 베를린장벽을 ‘인간성을 부정한 정치가 돌이 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심각한 분단을 21세기에는 절대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나 문화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커다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그런 집단 의식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나 적대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저는 ‘태생을 추궁하지 마라. 행동을 추궁하라’는 석존의 말을 인용했는데, 한가지 속성만으로 인간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은 잘못일 뿐 아니라 사회를 쪼먹는 분단의 운상입니다.

또 현재 세계가 맞닥뜨린 상황을 보면 배타주의의 움직임 속에 숨은 위험성과 그 맥락이 같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가 경기침체에 빠져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풍조가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풍조가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심각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는 성장이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이 점을 망각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대적 흐름이 거세지면 중요한 판단을 대부분 기계적으로 내리게 되어,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여지가 점점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선악이원론적 사상이 배타주의를 조장할 경우 작은 망설임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인간성이 불필요하게 여겨지면 어떤 희생도 개의치 않는 냉혹한 심정이 폭주할지도 모릅니다.

센 박사의 사회정의론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박사가 제기한 사회정의론이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는 사회정의를 고찰하면서 윤리와 법에 관한 산스크리트 고전 문헌에서는 정의를 '니티'와 '니야야'라는 두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사는 니티가 '제도, 규칙, 조직'의 공정성에 주목한 데 비해, 니야야는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결과, 특히 '사람들의 실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규칙, 조직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따르는 제도나 규칙뿐 아니라 현실 세계와 피할 수 없는 관계인 더 넓고 포괄적인 니야야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센 박사는 두 개념의 차이가 실제 정치에 나타난 예로 고대 인도의 아소카왕과 재상 카우틸라의 치정을 들어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실리론'을 쓴 카우틸라는 아소카왕의 조부가 재상으로 등용한 인물로 '정치적 성공'과 경제효율의 성과를 높이는 '제도적 역할'에만 관심을 두었다.

한편 아소카왕은 오로지 '사람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통치했다.

아소카왕의 사상에는 '강제성을 띤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때 사회는 더 풍요로워진다'는 확신이 담겨 있다."

편견이나 폭주를 막는 쇠기

아소카왕의 이러한 사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 참극을 일으킨 일을 크게 뉘우치고 불교에 귀의하면서 길러졌습니다.

불교의 근간에는 '중도(中道)'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니야야' 개념에 덧붙여 말하자면, 모든 기준을 인간의 행불행에 두고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도리에 맞는지를 어디까지나 심사숙고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니티적' 사상은 센 박사가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가 카우틸라처럼 돈이 지배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듯, 현대 사회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장률이나 최대 이윤추구와 같은 수직적 상승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시되기 쉬운 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오언설을 낳는 배타주의는 무조건 '자기들'은 '선'이고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악'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분단을 불러오는 배타주의나 희생도 개의치 않는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막는 사회의 쇠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사람 한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우정과도 같은 끈끈한 유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대담한 적이 있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경험에 비춰 말하면, 개인적인 교류가 있어야 전통적인 편견을 서서히 없앨 수 있다. 아무리 종교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교류하면 반드시 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도 세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우정이 더없이 소중한다는 점을 직접 실감했습니다. 80권에 이르는 대담집 한권 한권도 각자 걸어온 인생이나 신앙은 다르지만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

는 차이가 없다는 증거이자 '다음 세대를 위해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을 모은 '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도운 애덤스의 활동

이민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상에 관해서도 '존 듀이협회' 짐 개리슨 전 회장, 래리 히크먼 전 회장과 함께 삼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선구적인 사회활동을 편 제인 애덤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인비 박사의 백부 이름을 따서 런던에 지은 복지시설인 토인비 홀³을 방문하고 감동한 애덤스는 그때부터 자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애덤스가 시설을 개설한 시카고 빈민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애덤스가 쓴 평전에 따르면 경제적 빈곤과 열악한 환경으로 괴로워하는 이민자들이 헐 하우스(Hull house)라고 부른 이 시설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민자들은 애덤스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인류를 결합하는 일이 분리하는 일보다 가치적'이라는 신념으로 행동한 애덤스에게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사회과학자나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는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연구와 조사 덕분에 이민자뿐 아니라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률도 개정되었습니다.

히크먼 전 회장이 애덤스의 활동은 '갈수록 글로벌해지는 세계와 마주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³ 토인비 홀

1884년에 영국 런던에 개설한 세계 최초의 세틀먼트하우스(인보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연구와 활동에 열정을 쏟다 서른한 살로 요절한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J. 토인비 박사의 백부)의 생애를 기려 시설에 그 이름을 붙였다.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대학에서 공개강좌를 여는 등 교육활동에도 힘쓴다.

을 준다'고 말했는데, 저도 깊이 동감합니다.

당시 애덤스의 활동을 지원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헐 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바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애덤스의 신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덤스도 “우리는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인간이 살아가는 진짜 모습을 배우고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문명’이 어디가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인간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일대일로 맺는 우정이 아닐까요.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트 전 대통령이 사회에서 큰소리로 부르짖는 대립적 구도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한 일이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이슬람단체의 지도자로 활동한 와히트 전 대통령은 ‘문명과 문명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본디 충돌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다’며 타인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유학 경험을 들어 “청년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세계의 평화공존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하고 청년교류에 큰 기대를 거셨습니다.

저도 종교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세계 사람들과 우정을 하나하나 맺으면서 평화를 위한 연대를 구축해온 만큼 와히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도다 제2대 회장이 주장한 ‘지구민족주의’와 ‘원수폭금지선언’을 기반으로 제가 1996년에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를 창립했을 때 이란 출신의 평화학자 마지드 테라니안 박사가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것도 이러한 우정이 인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전(不戰)의 세대’를 구축하는 도전

세계는 단순히 국가가 모인 집합체도 아니고, 종교나 문명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고유한 배경을 가지면서도 '누구 하나 똑같지 않은 인간'의 삶 속에 세계는 숨 쉬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종교라는 틀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본디 한없이 풍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상을 일그러뜨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렇지 않고 일대일로 우정을 맺어 상대를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마음속 깊이 느껴야 민족이나 종교의 차이도 빛의 모습에 따라 비춰지는 다양성의 빛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 우정이라는 자기장(磁氣場)이 있어야만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반'으로 삼아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경사를 바로잡는 방도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SGI가 일관해서 민간교류의 저변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특히 청년교류에 힘쓰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일대일 우정을 소중히 쌓아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긴장관계에 놓일 때나 종교대립이 깊어질 때도 우정을 토대로 하면 증오 선동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빛이 슬퍼하는 사회를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대립에서 공존으로 향하는 흐름을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만들어냅니다.

폭력의 연쇄를 끊고 서로 우호를 다지는 이러한 '부전(不戰)의 세대'를 세계에 구축하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빛과 대화를 나누면 기쁩니다. 말을 주고받는 일이 즐겁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이 우정입니다.

그렇기에 우정은 어려운 과제에 맞서는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 우정이라는 수량이 불어날수록 사회는 반드시 크게 바뀝니다.

어떠한 분단의 타류도 막아내는 다양성 존중에 기반을 둔 '평화의 문화'의 물결은 청년들이 맺는 우정에서 거세게 일어나리라고 기대합니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는 접근방식

끝으로 셋째, 어떠한 고난이 덮쳐도 상황을 호전시키는 힘을 지역에서 길러야 합니다.

SDGs는 이전 새천년개발목표와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채택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유엔은 새로운 목표를 제정함에 있어 여성과 젊은이를 비롯해 여러 사람과 대화를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를 투표로 조사하는 등 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 중 70퍼센트 이상이 서른 살 미만인 젊은이로 교육, 보건, 고용 등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항목이 SDGs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미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의제에 관여하고 자신들의 일처럼 여기려 한다. 본 의제는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것으로 이 점이 의제를 성공으로 이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민중의 의제’라는 기본 틀은 제가 5년 전 SDGs를 제정하는 출발점이 된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리우+20)에 제안한 제언에서 강하게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과제로 여기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목표도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중의 의제’인 SDGs에는 또 한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빈곤과 기아퇴치와 같이 주제별로 목표를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와는 달리 모든 과제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접근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활동을 연동시키는 형태로 다른 목표도 함께 달성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물을 확보하면(SDGs 목표6) 병이나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이 줄어들고(목표3) 여성이 날마다 오랜 시간 물을 길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목표5)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목표1)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는(목표4) 긍정적 연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이라고 하는데, SDGs를 시작하기 전부터 유엔대학교 연구소가 연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각지에서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SDGs에는 17개 목표에 걸쳐 169개 세부목표가 있는데, 다방면에 걸친 과제의 연관성을 찾아내면서 동시에 해결책을 찾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격차확대와 같이 새천년개발목표에서는 대상이 아니던 과제가 SDGs에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제라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 때문에 발생한 과제인 만큼 인간의 손으로 해결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행동을 일으키고 단 한가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하면 그곳에서 돌파구가 열려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에 자신이라는 가닥을 엮는다

대승불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다이내미즘을 시사하듯 '번뇌즉보리'라는 법리를 설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고민이나 괴로움을 일으키는 번뇌를 없애거나 번뇌에서 벗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나 괴로움을 안고 있는 자신의 생명 안에 보리(인생을 여는 지혜와 힘)가 있다고 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 법리입니다.

문제는 번뇌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번뇌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니치렌 대성인도 "이일체고(離一切苦) 일체병통(一切病痛) 능해일체(能解一切) 생사지박지사(生死之縛之事) 즉 일체의 고통, 일체의 질병에서 떠나 능히 일체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는 법화경의 구절을 들어 "이(離)의 자(字)를 명(明)이라고 읽느니라." (어서 773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행동을 일으키면 번뇌로 괴로워하는 자신이 그대로 행복을 여는 존재가 된다고 설한 변혁의 원리입니다.

또 불교는 이 변혁의 파동을 상호 연관을 만들어내는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이나 사회로 크게 넓힐 수 있다고 촉구합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인간관계를 만들어 상황을 바꾼다는 관점은 흥미롭게도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후마니타스(진정한 인간성)'를 논할 때 제기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아렌트는 '공공 영역으로 향하는 모험'이라는 스승 야스퍼스의 말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은 고립 상태에서는 얻을 수 없으며 '자신의 삶과 인격을 공공 영역으로 향하는 모험에 바쳐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험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에 우리 자신이라는 가닥을 엮어 넣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렌트는 '그 모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결코 모른다'고 하면서도 확신에 차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는데, 제가 가장 공감한 말입니다.

"이 모험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좀처럼 이미지를 그리기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인간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험은 불가능합니다."

그 신뢰는 '근본적인 의미에서'라고 말했듯이 자신을 신뢰하고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희망을 어디까지나 잃지 않는다'는 의미의 신뢰도 포함하지 않을까요.

탄자니아 여성이 달성한 것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지난해 '내가 있는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힘든 환경에서도 남을 위해 행동하고 SDGs를 추진하는 데 일조하는 여성들을 소개했습니다.

그중에 탄자니아에서 태양열 전문기술자로 활약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장애를 안고 있었지만, 힘겹게 기술을 배워 자기 마을을 위해 지식을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남성이 이 여성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 태양열기구를 설치해 빛을 밝히고 기구가 망가지면 수리해주자 점차 여성의

일을 높이 평가하는 남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온통 컴컴하기만 하던 마을이 지금은 환하게 빛납니다. 조금 전, 어린아이들이서 제가 고친 태양등을 가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는 숙제를 할 수 있겠지요.”

이 마을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개선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말 ‘민중의 의제’라는 말대로 한 여성으로 말미암아 SDGs를 추진하는 긍정적 연쇄효과가 탄자니아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착실하고 존귀한 이 여성의 활동에서 아렌트가 말한 ‘자신이라는 가닥을 엮어 넣음’으로써 자신이 있는 곳을 환히 밝히는 ‘후마니타스’의 빛을 본 기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서 그중 일부를 책임지고 행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들 속에 존재합니다.

누구든 마음의 상처를 결의로 바꾸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에게는 풋풋한 감성과 이상을 향한 정열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로 잇는 다리로서 긍정적 연쇄효과를 일으키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무력감을 떨쳐 내는 청년부의 활동

도다 제2대 회장이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 뒤로 우리 창가학회와 SGI가 펼치는 평화운동은 늘 청년들이 중핵이 되어 추진했습니다.

현대 사회에 만연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떨쳐 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창가학회 청년부는 3년 전부터 ‘소카 글로벌 액션’ 운동을 펼쳐 동일본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호쿠에서 ‘마음의 부흥’을 위해 행동할 뿐 아니라 중국, 한국과 교류하며 ‘아시아의 우호’

추진과 '평화의 문화' 건설 그리고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각국의 SGI 청년부도 환경보호 활동이나 인권교육을 비롯해 비폭력 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을 펼치는 등 현실변혁을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SDGs에 초점을 맞춘 활동에도 힘을 기울여 지난해 11월에는 유엔본부에서 '청년이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보급과 추진을 촉진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담당인 데이비드 나바로 유엔 사무총장 특별고문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청년이 지속가능한 발전 운동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함께 행동하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신뢰를 쌓기를 청년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SDGs에 거는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청년은 눈앞에 위협이 닥쳐야만 움직이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과제 하나하나에 맞서 도전할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기에 청년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SDGs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라는 이름에 씌어 있듯 거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변혁한다'는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 희망을 굳게 결의하고 일어서는 청년이 늘어난다면 모든 목표에 전진 기어를 넣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SGI는 앞으로도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의 과제부터 국제적 위협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연쇄효과를 일으키는 데 도전할 결심입니다.

이어서 유엔의 SDGs가 목표로 삼고 있는 '평화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① 핵무기 금지와 폐기 ② 난민문제 대응 ③ '인권문화'의 건설이라는 세가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제는 핵무기 금지와 폐기입니다.

지난달(2016년 12월) 유엔총회는 역사적인 결의안을 채택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교섭하는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말과 6월 중순부터 7월에 걸쳐 유엔에서 토의하고 조기에 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에는 1만 5000기가 넘는 핵탄두가 존재합니다. 핵군축은 제자리걸음인 데다 핵전력을 강화하는 근대화 계획은 오히려 진행되고 있어 위협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고대 그리스의 고사인 '다모클레스의 칼'⁴을 인용해 경고한, 인류와 지구의 생태계가 늘 괴멸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태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에서 강조했듯이 핵문제 해결은 더욱 긴급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도 이어지는 고도의 경계태세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가능한 빨리 열어 핵군축의 기운을 다시금 높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국 지도자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문명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싸고 긴장상태에 빠진 뒤부터 양국의 관계는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공공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핵군축 교섭도 2011년에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발효한 것을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으며, 이 협정이 감축 달성 기한으로 정한 내년 이후부터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나눈 전화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세계 핵무기의 90퍼센트 이상을 보유

⁴ 다모클레스의 칼

'늘 신변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다. 기원전 4세기, 시라쿠사의 왕 디오니시오스가 왕의 권력과 부를 찬양하는 신하 다모클레스를 천장에서 칼이 털 한 올에 매달려 겨누고 있는 자리에 앉힌다. '부족함 없이 호화롭게 보이지만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다.

1961년 9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했다.

한 두 나라가 긴장완화를 꾀하고 핵무기 문제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대화하기를 저는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4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핵억지 정책이 이어지는 속에서 세계에는 약 1800기나 되는 핵무기가 즉각 발사할 수 있는 '고도의 경계태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카터 정권하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는데(1977년) 한밤중에 전략 공군 당직 장교에게서 '소련 미사일 200기가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중'이라는 긴급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 잊히지가 않는다고 술회했습니다.

곧바로 오작동이 원인이라고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확한 정보였다면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핵무기로 반격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을 것입니다.

핵전쟁을 원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핵공격을 막으려면 '언제라도 응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즉시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잠시도 안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핵전쟁의 위기에 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냉전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핵억지의 실태입니다.

도다 회장이 선언에서 주장한 것

돌이켜보면 스승이신 도다 제2대 회장이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 때는 다른 아닌 핵억지 태세의 기반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옛 소련이 수소폭탄실험을 하며 더 강력한 위력을 띤 핵무기를 만드는 경쟁을 했습니다. 핵개발의 초점은 핵무기를 폭격기로 투하하는 방식에서 핵탄두를 유도무기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하기 전(1957년 8월)에는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성공해 지구 어느 곳이라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또 9월에 들어서자 유엔 주도 하에 반년 가까이 이어진 원수폭 감축과 금지 등을 둘러싼 군축교섭이 결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캐나다 등 다섯 나라가 집중적으로 토의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무기 휴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하기 이틀 전 일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본 도다 회장은 핵무기가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데도 불구하고 군비경쟁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핵억지론에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핵무기의 억지력으로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이러한 논리는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일'이나 '자국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인류를 대부분 희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냉혹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도다 회장은 원수폭금지선언에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 "핵무기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며 그 사상에서 탈피하기를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미소 양국이 대치하는 구도를 '병 속에 든 전갈 두 마리'에 비유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는 핵보유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몇십억이나 되는 민중이 살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또 찢리느냐 찌르느냐는 대치 구도에 정신이 팔려 서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재래식무기와 전혀 다른 멸망의 무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핵억지론이 만든 환상을 깨기 위해 도다 회장은 "우리 세계의 민중은 생존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주장하고, 그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는 어느 나라든 용서할 수 없고 어떤 이유든 간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핵우산에 가린 중대한 비인도성

'억지력만을 믿고 그것이 깨질 경우 일어날 괴멸적인 결말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또 우발적인 사고로 일어나는 핵폭발은 억지력에 관계없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사고 방식은 '핵우산'에서도 똑같이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핵우산'은 그 하나하나가 핵무기라는 '다모클레스의 칼'로 구성되어 있어 자국을 지키는 일이라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참극이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매우 비인도적인 안보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사 단추를 눌러 핵의 응수가 일단 시작되면 분쟁 당사국뿐 아니라 이웃 나라와 지구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의 안전보장'과 '많은 민중의 생명이나 지구 생태계'가 저울질당하고 맙니다.

이 문제를 앞에서 언급한 경제학자 셴 박사의 정의론에 비춰보면 핵억지 정책이나 '핵우산'으로 타국의 핵공격을 막고 자국을 지킨다는 안전보장은 목적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니티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과의 정당성 즉, 실제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춘 '니야야적' 정의에 비춰보면 많은 민중의 희생과 지구 생태계의 파괴조차 불사하는 핵에 의존한 안전보장은 용서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을까요.

무력공격에 맞서 자국을 지킬 권리는 유엔헌장도 인정하고 있고 국제법상 '니티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안전보장을 일률적으로는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국을 지키는 방법이 과연 핵무기를 필수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무기 때문에 생기는 공포와 불안

본디 억지론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나라가 무기를 보유하고 증강할 때 사용한 논리이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가 말해주듯 억지력이 무너지면서 충돌이 벌어진 역사적 사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핵무기만큼은 억지력이 깨지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핵문제 전문가인 워드 윌슨은 '핵무기에 관한 다섯 가지 신화'라는 책에서 이 점에 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월슨은 집단적 폭력이나 전쟁을 둘러싼 인류의 역사는 6000년에 이르기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만 떼어내어 논하는 것은 "1퍼센트 증거 자료에 근거해 어떤 경향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수천 년에 달하는 문명의 성쇠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깊이 통찰한 역사가 토인비 박사와 같은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깊이 근거한 현상을 다루는 경우, 이것은 경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지론이 '인간의 본성에 깊이 근거한 현상'이라는 급소를 명확히 인식한 다음에 핵역지론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중대한 위험성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파고 들어 생명존엄 사상을 세운 불교의 관점에서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석존의 말에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라. 무기를 들어 치려고 한 데서 두려움이 생긴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부족 사이에 물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석존이 한 말이라고 전합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 석존이 대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상대가 두려워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통찰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 무기를 손에 들기 전까지는 물을 뺏으려는 상대방에게 격분했을지라도 거기에 공포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방을 때려눕히겠다고 무기를 든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깃들었다는 말입니다.

자동제어 핵반격 구축을 검토하다

오랜 세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기자로 일한 데이비드 E. 호프먼은 냉전시대에도 공포심리가 끔찍한 악몽 같은 일을 자행하려 한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 초, 소련 지도부는 어떤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핵공격으로 '국가 지도자가 모두 사망하고 정규 지휘 체계가 파괴되어도 의연히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반격할 기회를 잃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기에 '완전 자동화되고 컴퓨터로 작동하는 보복 시스템'을 실제로 구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 도중 수정하게 됩니다.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동' 시스템에 거부감을 지울 수 없어 최종적으로 지하 벙커에 살아남은 당직 사관이 핵미사일 발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냉전 말기 인간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핵반격 시스템이 구축될 뻔했습니다. 구상으로 그쳤다고는 하나 무기(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강렬한 공포, 그것이 바로 앞다투어 만들고자 한 '억지력의 최종형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냉전을 끝내는 계기가 된 레이카비크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1986년 10월)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간에 위치한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회담하자고 제안한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6개월 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핵의 무서움을 절감하고 핵전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대량살상 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더는 견디기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하게 우려했기에 핵무기 전면 폐지를 합의하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이듬해인 1987년에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을 체결하면서 핵군축을 향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미국과 러시아가 레이카비크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유엔 교섭회의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사고나 실수에 따른 핵무기 폭발 위험성을 낮추고 없애는 조치를 들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부터 위험성을 몇 차례나 경험한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정상들이 거듭 대화하여 '고도의 경계태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대폭적인 핵군축을 위해 새로운 첫발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강한 염원 공유

이어서 둘째 제안은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이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해 핵보유국과 그 밖의 핵의존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 유엔 교섭회의에 참가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해야 합니다.

최근 피폭지에서 외교회의를 열거나 각국 대표가 피폭지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핵무기 문제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했습니다.

2014년 4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한 핵비확산군축 이니셔티브(NPDI)에서는 핵의존국가인 호주와 독일, 네덜란드 등의 외무장관이 피폭자의 체험담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 속에서 핵무기의 비인도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단결된 행동을 위한 촉매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핵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해 핵의존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의 외무장관들이 원폭돔으로 발걸음을 옮겨 "두 번 다시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강한 염원과 함께할 것"이라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히로시마를 방문해 "우리 나라(미국)처럼 핵을 보유한 국가들은 공포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고 연설했습니다.

저는 피폭지에서 함께 논의를 해온 국가들을 비롯해 가능한 많은 국가가 핵무기금지조약 교섭회의에 참여하도록 일본이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2년 전,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문서 채택을 보류한 것처럼 이번 교섭회의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NPT의 중요성과 핵무기가 불러올 파괴적인 결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통인식을 발판으로 삼아 핵무기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의 전환점이 된 파리협정이 준 교훈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

니다.

파리협정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책임론으로 일관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미래상인 '저탄소사회'라는 이상을 내걸고 함께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핵무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과 이전, 위협과 사용 등을 규제하는 조약을 마련하는 일이 그 어떤 국가에서든 핵무기에 따른 참극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구적인 공동작업'이라고 여기고 이러한 이상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NPT 토의와 연동성 확보를

NPT는 전문에서 표명한 것처럼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참혹한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인식에서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 제정했습니다.

이 근본 취지에 비추어보면 교섭회의에서 검토할 핵무기금지조약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NPT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핵군축을 위해 성실히 교섭하기로 약속한 NPT 제6조를 구체화하고 NPT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각의 국가가 안고 있는 '안전보장상의 우려와 방위상의 과제'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길'의 교차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많은 국가가 함께 논의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에는 2020년에 개최하는 NPT 재검토회의를 위한 제1회 준비위원회를 빈에서 엽니다.

준비위원회에서 NPT 제6조의 핵군축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하면서 각 나라가 안고 있는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를 없애려면 함께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이후에 열릴 핵무기금지조약 교섭회의에서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모든 국가에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PT의 토의와 연동성을 확보하고, 견해가 다른 국가 사이의 골을 메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금

지조약 교섭은 반드시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핵무기 문제는 유엔을 창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 금지조약 교섭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지한 대화를 끈기 있게 지속한다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흐름을 역행하지 않는 확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섭회의 뒤에는 유엔이 내년까지 '핵군축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을 어떻게든 체결로 이끌어 대폭적인 핵군축 나아가 핵폐기를 위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단논리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셋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 시민사회가 교섭회의를 위해 성명을 내고 그것을 '핵무기 없는 세상의 민중선언'으로서 핵무기금지조약의 초석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깊이 관여하는 성질을 띠면서도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논의로 그치기 쉬운 과제에 대해 그 논의를 '인간화' 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행동의 연대를 세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핵무기 문제는 1955년 7월에 과학자들이 발표한 '러셀-아인슈타인 성명'⁵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집단에 호소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겠다."

"우리는 인류 구성원으로서 인류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러분의 인간다움을 상기하라. 그런

⁵ 러셀-아인슈타인 성명

1955년 7월, 철학자 러셀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11명이 핵무기 폐기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친 성명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의 과학자가 1957년 퍼그워시회의를 발족해 반핵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1995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2001년에 로트블랫 퍼그워시회의 명예회장이 성명을 새긴 특장판 제1호를 이케다 SGI 회장에게 증정했다.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잊어버려라.”

이 구절이 상징하는 것처럼 선언의 일관된 내용은 국가와 민족 등의 ‘집단 논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느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각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녀 그리고 후손들’에게 직접 관련된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1996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가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것도 ‘세계법정 프로젝트’와 같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입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과정에서 약 400만명이 참여하여 40개 언어로 작성한 ‘시민양심선언’을 제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은 일반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전면적인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성실히 이행해 완결시킬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핵무기금지조약 교섭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지금, 교섭회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해 금지조약을 ‘민중이 주도해 만든 국제법’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류에게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힘

이번에 유엔이 실시하는 교섭회의는 핵문제 해결을 바라는 각국의 외교적 노력도 물론이거니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를 비롯한 세계의 피폭자와 과학자, 의사, 법률가, 교육자 그리고 종교인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실현을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단체의 바람을 저마다 성명으로 만들어 회의에 제출하는 형태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민중선언’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또 핵무기금지조약의 의의를 민중 차원에서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 찬동의 공감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유엔 결의가 주장하는 ‘시민사회 대표의 참여와 공헌’으로 이어지고 금지조약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보유국과 핵의존국을 포함해 각국의 민중 사이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일이 틀림없이 금지조약의 실효성과 보편성을 강화하는 ‘들

도 없이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민중의 소리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핵폐기를 바라는 '평화시장회의(Mayors for Peace)'에 가입한 도시가 162개국·지역에서 7200개가 넘고 그중에는 핵보유국과 핵의존국의 도시도 많습니다.

히로시마시에 조각상을 제작해 기증한 인권운동가 에스키벨 박사가 평화는 '인류에게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는 안전보장에 과연 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류에게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힘'은 '차이를 뛰어넘어 생명존엄을 함께 지키는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민중의 굳은 다짐이 이루어내는 평화에 힘차게 맥동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SGI는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을 원점으로 평화운동을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을 내걸고 활동을 펼쳤습니다.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ICAN)과 공동 제작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연대-용기와 희망의 선택'전을 각국에서 개최하고 핵군축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운동 '핵무기 제로(Nuclear Zero)'에 찬동해 2014년에 5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 SGI는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우려하는 종교단체'에 참여해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데 협력했는데 이 공동성명을 지난해 개최한 핵군축에 관한 유엔 개방형작업반(OEWG)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다른 단체와 협력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세계청년서밋'을 히로시마에서 개최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핵폐기를 바라는 세계 청년의 국제 네트워크 '앰플리파이'를 지난해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 가나가와에서 원수폭금지선언 60주년을 기념해 '청년부전서밋'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10년에 걸친 일련의 활동을 어떤 마음에서 펼쳤는지는 SGI가 유엔 개방형작업반에 제출해 유엔의 공식 문서가 된 보고서에 씌어 있는 다음의 글귀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핵무기는 인간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희망을 품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

도록 방해한다.”

“핵무기의 근원적인 문제는 타자를 철저히 부정하는 데 있다. 이것은 인간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평등해야 할 행복권과 생명권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핵군축을 향한 도전은 핵보유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충분한 관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구적인 공동작업이어야 한다.”

3월부터 유엔이 실시하는 교섭회의를 ‘지구적인 공동작업’을 창출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다른 단체와 협력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해야 하는 선택

이어서 둘째 주제는 난민들이 살아갈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난민지원입니다.

근년에 분쟁과 박해를 피해 태어난 고향과 정든 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해 그 수가 6530만명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6년 동안 계속된 시리아 분쟁이 낳은 인도적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3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쟁의 공포와 고통으로 피난생활을 하고 있으며 480만명이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유엔이 가장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우선과제는 ‘평화에 관한 것’이라며 ‘인간의 고통을 모든 차원에서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평화를 위한 외교를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2016년 12월) 30일, 시리아 전역에 발표된 정전합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전합의를 준수하도록 주장했으나 이대로 내전이 진정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의 지원으로 다음달(2월)에 개최할 예정인 평화회담을 통해 난민고등판무관을 오랫동안 지낸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엔과 관계국이 연계해 시리아 분쟁을 하루빨리 종결시키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두려운 분쟁을 피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전면적으로 연대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제는 지난해 5월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서도 초점이 되었습니다.

개막식에서도 제기했듯이 분쟁으로 갑자기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이 날마다 힘겨운 선택을 해야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폭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살던 곳 근처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가족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를 것이냐.

바다를 건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배를 탈 것이냐 아니면 이곳에 남을 것이냐.

피난생활 중에 아이가 병에 걸리면 주머니 사정에 맞추어 가족을 위한 식량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이의 약을 살 것이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나고 자란 환경이나 걸어온 인생은 달라도 우리와 다른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회복탄력성을 함께 강화하는 활동

시민사회 대표도 많이 참석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서는 인도주의와 개발을 분리하지 않고 추진하는 일 그리고 난민들과 수용국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강화하는 중요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회복탄력성 강화는 우리 SGI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여기는 것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인도주의 전시 '인간의 부흥-한사람 한사람이 만드는 미래'에서도 강조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민 수용국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려면 난민들이 SDGs에 관련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인도주의와 존엄을 위한 파트너십'을 마련해 유엔을 중심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가 지원하는 난민 중 86퍼센트가 분쟁지역 주변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SDGs가 해결하고자 하는 빈곤과 보건위생을 비롯한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다 난민 수용에 따르는 문제도 떠안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상 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인도주의와 개발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에티오피아에서 추진한 프로젝트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주변국의 잇따른 분쟁으로 난민을 73만명이나 받아들였는데 지난해 공교롭게도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마련해 자연자원 관리, 인프라 복구지원과 함께 지역주민과 난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난민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용국의 안정과 발전 없이는 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또 SDGs 과제를 안고 있는 점에서는 선진국이나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SDGs를 달성하려면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비롯해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에 관련한 일이나 의료와 보건위생에 관련한 일 등 다양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 사무국장은 지난해 난민들에게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난민을 위한 '뉴딜'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의 형태로 인도주의와 개발을 통합하여 난민들이 SDGs에 관련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엔과 각국이 협력해 기능 습득과 취업연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수용국에서 쌓은 경험을 국가 부흥의 밑거름으로

인간에게 일은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적인 발판이 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람을 느끼는 원천이고 자신이 살아 있다는 증거를 사회에 알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확보는 '사회정의 실현'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시드니평화재단의 스튜어트 리스 전 이사장도 저와 대담할 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이 없는 상태는 ‘무언가를 달성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또는 사회에 공헌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인간적 감각’을 부정하고 ‘인간존엄을 근원에서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1929년 세계공황으로 발생한 대량실업을 해결하고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작한 뉴딜정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딜정책으로 댐 건설사업과 더불어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나무를 심는 시민보전단도 결성해 약 10년 동안 총 300만명의 청년들이 이 보전단에 종사했습니다.

2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고 각지에 있는 국립공원을 정비했습니다.

많은 청년은 그 일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비된 국립공원과 숲은 지금까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보전에 공헌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등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아도 난민들이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SDGs 이행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난민들은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기에 여러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분쟁이 끝나고 귀국했을 때에는 수용국에서 ‘SDGs’에 관련해서 쌓은 경험이 모국의 부흥과 재건에 틀림없이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침 지난해 9월, ‘유엔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난민 관련 글로벌 콤팩트’라는 새로운 규범을 내년(2018년)에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 최대 인도적 위기인 난민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없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이상을 내건 ‘SDGs’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에티오피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 일본이 유엔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도주의와 개발을 통합하는 활동’에 앞으로도 힘을 쓴다면 그 의의는 크지 않을까요.

유엔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튿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지도자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약 100만 명에게 교육지원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앞으로 5년간 시리아인 유학생을 최대 150명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지원활동을 기반으로 ‘SDGs’ 추진에 관련한 기능습득이나 취업연수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인도주의와 존엄을 위한 파트너십'을 선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학의 사회적 사명

또 이에 관해 세계의 대학이 유엔과 연계해 난민 젊은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후원하기 바랍니다.

7년 전에 시작한 유엔과 세계의 대학이 연계를 맺는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AИ)에 120개국 이상 1000여개에 달하는 대학이 가맹했습니다.

이 대학들은 지구적인 과제를 망라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의 대학이 갖는 힘을 인류의 을 위해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난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센터인 '토인비 홀'에서 활동한 사람도, 이민자가 존엄을 되찾도록 지원한 '혈 하우스'에서 교육활동을 펼친 사람도 대부분 대학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대학은 사회에 '희망과 안심을 주는 항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의 대학이 지구적 과제를 연구하는 일에 공헌하고 출장강의나 통신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로 난민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의의는 클 것입니다.

제가 창립한 소카(創價)대학교도 지난해 5월, 'UNHCR'과 '난민고등교육프로그램' 협정을 맺어 올봄부터 난민 유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난민선수단의 일원으로 출전한 시리아 출신의 유스라 마르디니는 같은 처지에 놓인 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난민을 대표해 고통과 폭풍의 시기가 지나면 평온한 날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분쟁으로 정든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는 난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이나 삶의 희망은 일자리나 교육의 기회를 통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유엔이 채택하고자 하는 '난민 관련 글로벌 콤팩트'에 일자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내

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난민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난민이 안심과 희망 그리고 존엄을 되찾을 때 비로소 크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폭력적 과격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셋째 주제인 '인권문화' 건설에 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오랜 분쟁이나 내전과 더불어 잇따른 테러와 날로 심해지는 폭력적 과격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나 인생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폭력적 과격주의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2016년) 11월, 미국 이스턴메노나이트대학교에서 이러한 폭력적 과격주의가 만연하는 현상을 막고자 연구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처벌이 곧 폭력을 막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각국에 널리 퍼지는 가운데 그 유효성과 과제를 각지의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 긴장감이 이어지는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 과격주의가 퍼지는 배경에 주안점을 두고 예방에 힘쓰는 일, 즉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노력을 사회에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는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일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채택한 지 5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이 인권교육훈련선언은 인권교육의 국제기준을 처음으로 정한 선언으로서 SGI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해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선언 채택 5주년을 기념하는 정부간 패널을 열어 SGI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케이트 길모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각지에서 증오나 폭력이 퍼지는 한편 인권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고무시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 좋은 소식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권교육은 우리 개인의 다양성을 넘어 공통적인 인간성을 육성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도 습관으로 굳어진 의무도 아닙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근원적인 덕목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인권교육의 진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이 의견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18억 청소년이 갖는 커다란 잠재력

정부간 패널에서는 인권교육을 통해 한 소녀에게 일어난 변화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소녀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자신의 존엄성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소녀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 주위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권을 짓밟힌 희생자가 아닌 주위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이러한 소녀의 모습이 바로 ‘인권의식의 놀라운 힘’을 나타내는 사례이자 ‘교육이 바로 변혁의 촉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교육에는 무한한 힘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변혁의 파동을 모든 곳에 퍼트리고자 인권교육훈련선언을 기반으로 한 ‘인권교육훈련조약’ 제정을 목표로 실시수단 강화를 제안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70주년을 맞는 내년을 기회로 삼아 예를 들어 ‘인권교육에 관한 유엔과 시민사회포럼’과 같은 자리를 만들어 조약 제정을 논의하면 어떨까요.

전 세계 인구 중 열 살에서 스물네 살 젊은 층이 18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가 폭력이나 분쟁이 아닌 인권을 지키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인권교육훈련선언이 내건 ‘다원적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향한 길이 크게 열릴 것입니다.

그 원동력인 인권교육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법률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한 다음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간 패널에서 우리 SGI가 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교육 2020'을 대표해 주장한 것도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으로 시작하는 국제적인 인권보장은 인권의 규범설정이나 보호규정에 이어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존엄성을 서로 보장하는 '인권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일이 초점이 되었습니다.

SGI는 유엔이나 관계단체의 협력을 얻어 2월말부터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맞추어 새로운 인권교육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전시 등을 통해 시민사회 측면에서는 '인권문화' 건설의 연대를 크게 넓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NGO단체와 연계하여 '인권교육훈련조약'을 제정하는 데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안보리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대전환

끝으로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데 깊은 관련이 있는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논하고 싶습니다.

양성평등은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와 책임 그리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여성기구가 강조하듯 그 주된 목표는 다양성을 인식하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관심이나 요구를 함께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SDGs'에는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증명하듯 지난해 3월,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역대 최다 인원인 80개국의 장관과 시민사회 대표 약 41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SGI 대표도 참석하여 관련 행사로 'SDGs 달성을 향한 길을 여는 여성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양성평등이 중요한 인권문제임과 동시에 그 활동이 모든 'SDGs'의 전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SDGs'를 포괄적으로 달성하는 '연계접근법'의 핵심이 바로 양성평등이라는 말입니다.

1995년에 개최한 제4회 세계여성회의에서 각국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 뒤에 2000년 10월에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⁶가 양성평등의 전기가 되었습니다.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련한 활동에 여성이 평등하면서도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한 결의안입니다.

채택에 힘쓴 안와를 초두리 전 유엔 사무차장은 결의안을 실현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의 역할에 관한 '개념적, 정치적 대전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3월, 세계여성의 날에 안보리가 낸 성명에서 평화와 양성평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명기함으로써 '전쟁이나 분쟁의 무력한 피해자'로 여겨진 여성에서 '평화와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추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로서 결실을 맺어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길이 명확히 열렸습니다.

유엔헌장을 둘러싸고 여성이 낸 목소리

2년 전에는 결의안의 실행 상황을 평가한 유엔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여성이 관계된 평화교섭은 합의가 쉽고 지속성도 높다는 점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서도 여성요원이 현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존재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SDGs'를 달성하고자 각국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거나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유

⁶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200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이다.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에 관한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와 함께 분쟁지역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유엔 회원국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후 40개국 이상에서 결의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웠으며 안보리도 1325호 결의안을 보강하는 결의안 여섯 개를 채택했다.

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이끈 인식의 전환을 되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여성은 무력한 존재가 아닌 여성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 에머슨협회 전 회장이자 여성학에 조예가 깊은 사라 와이너 박사도 예전에 나눈 대담에서 "어떤 사람이든 강제적으로 남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누구나 '나란히' 앉아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의 힘이나 존재를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유엔 창설 당시 유엔헌장에 인권보장의 핵심을 이루는 구절을 넣도록 공헌한 사람이 여성들이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헌장 제정회의를 열었을 때 각국 대표단이 인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잇따라 냈습니다. 그때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여성들이 단순히 '인간의 권리'라는 표현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장 전문에 남녀 평등권을 언급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인권을 존중하는 규정(제1조 3항)과 더불어 유엔의 모든 기관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가할 자격이 있음(제8조)을 명기했습니다.

법화경에 묘사된 용녀의 존귀한 모습

이러한 유엔 창설 때의 일화를 접하면서 불교의 정수인 법화경에서 '만인존엄'을 설하는 중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여성존엄'이 묘사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석존이 사람은 누구나 최고로 존귀한 생명을 갖추고 있다는 '만인존엄'의 법리를 설하자 중요한 이야기는 다 들었다고 생각한 지적보살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석존의 권유로 문수사리보살과 대화하게 된 지적은 겨우 여덟 살 소녀(용녀)가 최고로 존귀한 생명을 빛내 사람들에 대한 깊은 자애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지적 앞에 갑자기 용녀가 나타납니다. 석존의 제자인 사리불도 어린 소녀를 보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용녀는 최고로 존귀한 생명의 증거인 보주를 석존에게 바치고 나서 사리불에게 자신의 진정한 생

명의 빛을 보기 바란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용녀가 사람들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실제로 본 사리불과 지적은 문수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만인존엄'이라 해도 추상적인 이해만으로는 완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니치렌(日蓮) 대성인이 용녀가 외친 핵심은 "사리불이 용녀의 성불이라 생각하는 것은 벽사(僻事)이니라. 자신의 성불이라 관하라."(어서 747쪽)는 것이라고 강조했듯이 용녀의 존엄과 사리불의 존엄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용녀의 존엄(여성존엄)을 통해 사리불의 존엄(남성존엄)도 뚜렷해집니다.

즉 법화경에서는 '여성존엄'을 현실로 나타냄으로써 '만인존엄'이 진정한 내실을 갖춰 완성됩니다.

현대의 인권도 유엔헌장에 여성 권리의 중요성을 넣었기 때문에 유엔에 인권정신이 선명하게 깃들 수 있었습니다.

유엔헌장을 제정하는 회의에서 의견을 낸 여성도 여성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엔 여성기구에서는 현재, 양성평등의 추진에 남성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자는 '히포시(He For She)'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와 권리가 필요하며 자유와 권리를 희구하는 행동에 차이에 따른 구별을 두면 안 됩니다.

양성평등의 목적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의 빛을 자기답게 빛낼 수 있는 길을 다 같이 크게 넓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 SGI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권문화'를 책임질 민중의 연대를 견고히 다지면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세계를 구축하는 희망을 여는 새벽종을 힘차게 울리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1. ‘도다 조세이 전집 제4권’ 세이쿄신문사
2. 유엔 홍보부 센터 홈페이지
3. ‘불제자의 고백’ 나카무라 하지메 옮김, 이와나미서점
4. ‘위대한 철학자들’ 칼 야스퍼스 저, 미네시마 히데오 옮김, 이상사
5. ‘원시불전 제1권’ 유네베 도시히데 등 옮김, 고단사
6. ‘붓다의 진리의 말씀 감흥의 말씀-법구경’ 나카무라 하지메 옮김, 이와나미서점
7. ‘대승불전7 유마경·수릉엄삼매경’ 수록 나카오 가진 옮김, 중앙공론신사
8. ‘인권의 세기를 향한 메시지’ 이케다 다이사쿠 / 아돌포 펠레즈 에스키벨 저, 동양철학연구소
9. 유엔난민기구 주일사무소 홈페이지
10. ‘세계는 왜 싸우는가?’ 제러미 로젠버거 저, 아쓰미 게이코 옮김, 아사쿠라서점
11. ‘바이츠체커’ 가토 쓰네아키 저, 시미즈서원
12. ‘정의라는 아이디어’ 아마르티아 센 저, 이케모토 유키오 옮김, 아카시서점
13. ‘교육록’ 아널드 J. 토인비 저, 하세가와 마쓰지 옮김, 사회사상사
14. ‘피스우먼’ 안젤리카 U. 로이터 / 안네 루퍼 저, 마쓰노 야스코 / 가미우라 린토 옮김, 에이지출판사
15. ‘인간교육을 향한 새로운 조류’ 이케다 다이사쿠 / 존 듀이 저, 제삼문명사
16. ‘제인 애덤스의 생애’ 저드슨 저, 무라오카 하나코 옮김, 이와나미서점
17. ‘평화의 철학 관용의 지혜’ 이케다 다이사쿠 / 압두라만 와히트 저, 우시오출판사
18. ‘아렌트정치사상집성 제1권’ 제롬 콘 저, 사이토 준이치 / 야마다 마사유키 / 야노 구미코 옮김, 미스즈서방
19. 유엔 여성일본협회 홈페이지
20. ‘핵무기에 관한 다섯가지 신화’ 워드 윌슨 저, 히로세 사토시 옮김, 법률문화사
21. ‘데드핸드’ 데이비드 E. 호프만 저, 히라가 히데아키 옮김, 백수사
22. ‘히로시마에 온 대통령’ 아사히신문 취재반, 지쿠마서방
23. ‘평화의 철학과 시심을 말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 스튜어트 리스 저, 제삼문명사
24. ‘새로운 지구사회 창조를 위해’ 이케다 다이사쿠 / 안와를 초두리 저, 우시오출판사

25. ‘어머니를 위한 찬가-시집과 여성의 시대를 말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 사라 와이더 저, 우시
오출판사